

6.3 금 자기 행복

이제 우리
하나님께
지게 하소서

누가복음 22:44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주님, 우리가 성경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는 종종 글자대로 이해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것 또한 바로잡아 주시기를 빕니다. 말씀을 안다는 이유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먼저 하나만도 못한 내 안에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을 가두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어리석게도 우리는 기도를 드리며 압복나루 야 곱을 떠올리곤 합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물러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질리시도록 때를 쓰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내 뜻 아뢰기에 급급합니다.

주님, 아픈 마음으로 구하오니 이루어 주소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 지게 하소서. 얼마든지 진심으로 지게 하소서. 하나님을 이기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소서. 하나님을 이기려는 마음을 기도로 물리치게 하소서.

고난의 잔 십자가를 앞두고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며,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신 주님의 기도를 우리도 드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4 토 한 사람의 무게

세상을 감당할
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누가복음 3:2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주님, 한 사람의 무게는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때로는 깃털처럼 가볍게 여겨지기도 하고, 때로는 태산처럼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니 도대체 사람의 무게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요한에게 임했다는 말씀은 엄청난 무게로 다가옵니다. 말씀의 암흑기라 불리는 친구약 중간기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400여 년의 긴 침묵 끝에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의 요한에게 임한 것이었습니다. 디베로, 본디오 빌라도, 헤롯과 빌립,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이름들과, 황제, 총독, 분봉 왕, 대제사장이라는 지위, 당대를 쥐락펴락하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아무런 지위도 기록되지 않은 요한은 한없이 가볍고 초라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요한이 훨씬 무겁게 느껴집니다. 열거된 이름들과 지위 모두를 합한 것보다도 훨씬 무겁게 느껴집니다.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가 선 자리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도 그리하게 하소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지닌 우리 믿음의 무게가 세상 무엇보다도 무겁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신도주일 가정예배문

6.5 주일

준비찬양 완전하신 나의 주 다함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묵 상 요한복음 4:24 말은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 양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다함께

기 도 말은이

성경봉독 말은이

말 씀 가족대표

중보기도 서 로

찬 양 나 주님의 기쁨되기 원하네 다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케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기도문 다함께

* 각 순서는 가족 구성원이 조화롭게 말도록 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성경봉독, 기도순서를 말도록 하여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성 회복

기도 주간 2022. 5. 30 월 - 6. 4 토

평신도주일 2022. 6. 5 주일

“너무 오랫동안 당신의 쟁쟁날이 닿지 않은, 오늘 우리는 황무지(荒蕪地)입니다.”

돌팽이가 많은 험한 밭을 갈 때, 혹은 땅을 깊게 갈아엎어야 할 때는 소 두 마리를 부렸습다. 그것을 ‘겨릿소’라 불렀습다. 겨릿소는 일의 경험이 많은 ‘안소’와 아직은 서툰 ‘마랏소’로 이루어집다. 일을 할 때 농부는 회초리를 안소 쪽에 잡았습다. 안소만 제대로 가면 마랏소는 어렵지 않게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마11:29)는 주님의 말씀은 “와서 내 겨릿소가 되어주려, 나와 함께 하나님의 밭을 갈자”는 주님의 초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은 갈아엎을 힘이 없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은 주님께서 안소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매도 우리 대신 주님이 맞으셨고요.

너무 오랫동안 주님의 쟁쟁날이 닿지 않은, 오늘 이 땅은 영락없는 황무지입니다. 2022년 평신도주간을 맞아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주님과 함께 이 땅을 기경하는 사랑의 노동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주관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 주최 지방 사회평신도부

5.30 월
깨끗한 마음

깨끗한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태복음 5: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
여덟 가지 복 중의 하나로 일러주신 주님의 말씀
은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곡식을 까부를 때, 어머니들은 키질을 했습니다.
거둬들인 곡식을 키 안에 올려놓고 까부르기 시
작하면, 솟았던 곡식은 키 안으로 떨어져 그 자
리에 남았고 검불과 지푸라기는 바람에 날려 바
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일을 반복하다 보면 나중
에는 알곡만 남았습니다.

주님, 마음의 깨끗함은 키질의 결과였습니다. 우
리가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고 닦는다고 깨끗해
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검불이 바람에 날리듯,
주님께서 우리를 키질하셔서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키질해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버려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근심과 욕심, 어둠과 두려움, 슬픔과 상처, 낙심
과 절망,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원하지 않는 것들과 뒤섞인 우리
를 키질해 주시기를 빕니다. 바람이 검불을 날리
듯 성령으로 우리 안의 온갖 검불들을 제거해 주
십시오. 그리하여 마침내 깨끗한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31 화
정직한 마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않게 하소서

시편 51:4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
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
전하시다 하리이다

주님, 때때로 우리의 재주는 얼마나 옹한지 말씀
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도망을 칩니다. 말씀을 통
해 주님 앞에 서는 대신, 말씀을 통해 숨기도 합
니다. 썩은 눈 속에 자기 머리를 집어넣고 아무
것도 안 보이는 것에 안도하듯이, 말씀 앞에 우
리를 숨길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는 나만의 지적은 날카로
운 비수와 같았지만 그럴수록 다윗은 하나님 앞
에 엎드렸습니다. 나만의 목을 치는 대신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신(시 6:6) 다윗이
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시 51:4)는
말은 많은 순간 우리의 도피처가 되곤 합니다.
사람들 앞에 큰 죄를 짓고도 주님께만 죄를 지은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사람에게 용서
를 구하는 것보다는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훨씬 가볍고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윗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게 하
시기를 빕니다.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임을 고백하는 다윗의 마음
을 왜곡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손바닥으로 하늘
을 가리며 스스로 죄 없다 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1 수
하늘바라기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눈이 멀도록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사야 38:14

나는 제비 같이 학 같이 지저귀며 비둘
기 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양
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
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늘에서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천둥지기입니다. 우르르 광광 천둥소리
울리고 비가 내려야 그 은총에 기대어 살아가는,
하늘이 심고 하늘이 거두는 천수담(天水潭)입니
다. 하늘만 바라보는 하늘바라기입니다.

코로나19의 시간은 우리 삶의 지축을 흔들었습
니다. 당연하게 여겨왔던 많은 것들이, 모든 것
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아프게 배웠
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시간은
큰 고통이었습니다. 점차 예배에서 멀어지는 현
실을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여기는 것도 큰 부끄
러움입니다.

중년의 나이에 죽음을 통보받았던 히스기야를
생각합니다. 앗시리아의 공격을 앞둔 시점, 그가
느꼈을 무력감에서 이 시대 우리의 무력감을 봅
니다. 다가온 상황은 절박한데, 그것을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러러 본 히스기야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되
게 하소서. 우리가 부족할수록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바라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2 목
얼싸안기

주님이 그리하였듯,
우리도 얼싸안기를
하게 하소서

마가복음 1:41~42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
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
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
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주님,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그럴듯한 명분 하나
를 주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서로에
대한 무관심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무
관심과 외면을 배려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렇
게 우리는 따뜻한 관심과 사랑에서 멀어지고 있
습니다.

주님을 찾아온 나병환자를 외면하지 않으신 주
님, 기겁을 하며 물러서거나 호통을 쳐서 쫓아내
지 않으신 주님을 떠올립니다. “깨끗해져라.” 말
씀을 하시기 전, 주님은 손을 내밀어 그를 만져
주셨습니다. 말씀 한 마디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음에도 먼저 손으로 어루만
져 주시는 주님의 모습 앞에 마음이 숙연해집니
다.

주님, 모든 사람에게 버림당한 이에게 거룩한 손
을 내미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도 마음에 새기
게 하소서. 누군가의 아픔을 말로만 위로하지 않
게 하시고, 상처에 소금 뿌리듯 서툰 충고만 내
뱉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내미신 손은 얼싸안기였습니다. 얼을
감싸 안는, 지극한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이웃 아픔을 얼싸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